

가족 중에 교회 직분자 또는 웃어른

여호와께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
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
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온 가족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해
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에도 우리 가정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
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습
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온 가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와 의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라

지난 한 해도 다사다난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섰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나타나셨고 그를 복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악한 세상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로 서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와 의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삼하22:22).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악을 행하지 않았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둘째 아들의 인생에 재앙이 밀려온 때가 언제입니까?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받은 돈을 다 탕진하고 쥐엄 열매를 구걸해야 했던 순간입니까?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결핍과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서 재앙이 아닌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품은 곧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삼하22:29). 우리 힘으로 어둠 속을 걸을 수 있습니까? 등불 되신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뚝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품에서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결단이 2023년은 물론이거니와 천국 가는 그때 까지 우리 가정의 든실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으로다”(삼하22:23).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 행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거머쥐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인생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와 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와 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시19:7-8).

이제 우리는 우리 생각을 앞세웠던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켜 행하십시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의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아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